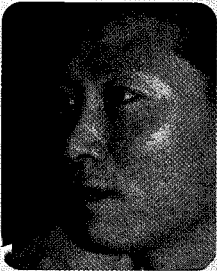


특별기고

돼지고기 수입량이 폭증세다. 수입돼지고기 가격도 지속적인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돼지고기에 손 안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너도나도 손대고 있다.

특히 국내 산지 돼지 값이 폭등세라고 난리다. 돼지고기 값도 폭등세라고 난리다. 그런데 돈 버는 생산자는 전체 15%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따지면 작년 말 기준 우리 나라 전체 돼지농가 중 2천여 농가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가격 상승에 따라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 대부분이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철 대표
미트저널(주)

‘수입육 천국’에 걸맞는 견제장치 마련 절실

따라서 작금의 돼지고기 시장은 안팎으로 온통 난리다. 더욱이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관심의 대상이다. 냉철하게 생각할 때가 지금인 것 같다.

“돼지 키운지 30년만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는 생산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최근의 돼지고기 시장은 ‘하늘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산지 돼지 100kg 기준 한 마리에 27만원이 넘어선 곳도 있다. 지육 가격은 앞으로 성수기에 들어서면 kg당 4천원을 넘는다는 시간 문제며, 5천원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치마저 조심스럽게 나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돼지고기 유통업체는 물론 쇠고기 유통업체들까지 “이번 기회에 돼지고기 유통물량을 확대, 올해 내로 한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요즈음과 같은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다급함과 조급함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돼지고기 소비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많은 음식점들은 “가격 때문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입돼지고기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예컨대 국산 냉장돼지고기 삼겹살 납품가격이 kg당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입 냉장돼지고기는 7천원으로 30%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국산으로 둔갑판매할 경우 그 수익은 50%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일부 몰지각한 식육판매업소에서 그 행태가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원재료비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의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수입돼지고기는 관심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조금 달리 '둔갑의 사각지대'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둔갑 사각지대', 초법적 조치 마련해야

실제로 삼겹살을 기준으로 볼 때 연골이 있으면 국산, 연골이 없으면 수입육이라는 통례

〈표 1〉 2월 현재 돼지고기 수입동향(검역기준)

(단위 : 톤)

부위명	04년 총계	05년 전월 누계(A)	'05. 2월				누계(A+B)	비율(%)
			상 순	중 순	하 순	계(B)		
갈 비	12,317	2,802	522	633	1,272	2,427	5,229	16.38
뒷 다리	691	48	16	23	45	84	132	0.41
등 심	371	23	17	22	16	55	78	0.24
목 심	13,714	2,277	700	875	1,083	2,658	4,935	15.46
삼 겹 살	64,484	9,246	1,552	2,829	2,680	7,060	16,306	51.08
안 심	82	-	-	-	21	21	21	0.06
앞 다리	13,349	1,551	373	718	1,023	2,115	3,665	11.48
기 타	3,821	637	164	328	420	912	1,550	4.85
계	108,829	16,584	3,344	5,429	6,564	15,332	31,921	100

* 소수점 이상 절상

〈표 2〉 수입돼지고기 도매유통 가격동향(3월 11일 현재)

(단위 : kg, 원)

품 목	국 가	브 랜 드	가 격	품 목	국 가	브 랜 드	가 격	
목 살	칠 레	아그로	5600~5900	삼겹살	칠 레	아그로	6100~6400	
		헝가리	5400~5700			프랑스	버나드	6100~6400
		캐나다	5500~5800				쿠 펠	6000~6400
목전지	미 국	씨보드	4000~4200		쓰코파		5600~5900	
		스미스필드	3800~4000		아벨라		5600~5900	
갈 비	헝가리	링 가	4700~5000		덴마크	푸데인	4700~5000	
		파 파	5100~5800		벨기에	릭 스	5300~5500	
	덴마크	DS	4400~4600			웨스트	5200~5400	
오스트리아	마 처	4700~4900	보니맥스			5200~5400		
등 뼈	캐나다	올리멜	1300~1500		네덜란드	두메코	6100~6500	
		메이플	1300~1500	핀란드	아트리아	5500~5700		
목 뼈	캐나다	올리멜	1600~1800	오스트리아	마 처	5300~5500		
		메이플	1600~1800		알프스	5300~5500		
장 족	칠 레	아그로	2700~3000					

에 따라 수입업체는 패커들에게 다양하게 주문하고 있다. 또한 삼겹살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과 껍질이 없는 것까지도 주문하는 등 거래업체가 찾는 것은 무엇이든 '맞춤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둔갑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물론 예전 한국산 돼지고기가 일본 내에서 자국산 돼지고기로 둔갑판매 되는 것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는 하지만 악용되는 빈도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둔갑판매는 쇠고기의 둔갑과 달리 식육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없고서는 구별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우려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된 돼지고기 수입량의 폭증세다. 말그대로 지난 1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나 넘는 1만6천600여톤이 쏟아져 들어왔다. 또한 설마했던 2월 수입량 역시 1만5천톤을 넘어섰다.

두 달 사이 들어온 돼지고기 수입량은 작년 한 해 총 수입물량의 30%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 수입됐다. 이 상태로라면 올 연말쯤에는 전년대비 50% 이상인 15만톤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입돼지고기의 수요는 지난해 경우 총 공급량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들어 지난 2월까지의 올 총 수요 예측량인 89만 4천100톤의 3.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급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입량 폭증에 대해 그냥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고만 해석한다면 상당한 오판을 불러 올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수입돼지고기 시장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돼지고기 소비시장의 수입육 비중이 급격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산 삼겹살과 목살 재고가 이어지고 있고, 냉장

〈표 3〉 2004년 돼지고기 국별, 월별 수입량

(단위 : 톤)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비율
네 달 란 드	319	553	671	696	1,718	1,002	711	853	963	729	518	633	9,366	8.6
덴 마 크	496	272	558	1,996	1,875	1,675	270	282	471	254	539	1,151	9,839	9.0
멕 시 코	-	17	-	-	23	25	-	-	48	-	107	120	113	0.1
미 국	729	487	1,294	1,799	2,101	1,546	479	469	365	418	906	2,295	12,888	11.8
벨 기 에	803	1,271	1,551	2,011	1,823	1,843	1,879	1,371	576	1,065	1,249	1,305	16,747	15.3
스 페 인	-	-	-	46	23	122	249	367	156	231	96	22	1,312	1.2
영 국	-	-	-	-	-	-	-	60	20	60	40	67	247	0.2
스 웨 덴	-	-	45	57	111	131	193	-	156	38	12	22	765	0.7
오스트리아	-	155	376	660	652	661	803	796	665	750	631	643	6,792	6.2
칠 레	1,429	1,050	1,610	1,611	1,314	1,316	1,055	1,537	1,282	1,853	1,635	1,474	17,166	15.7
캐 나 다	230	218	741	1,002	870	861	805	919	674	710	655	859	8,544	7.8
폴 란 드	-	238	254	313	293	322	364	419	374	515	397	430	3,919	3.6
프 랑 스	-	458	970	1,508	1,278	1,294	1,020	1,256	1,082	1,201	982	939	11,988	11.0
핀 란 드	-	22	81	32	142	120	64	114	48	75	50	92	840	0.7
헝 가 리	240	129	391	427	342	722	547	451	552	508	433	684	5,426	4.9
호 주	-	60	43	53	117	95	196	73	51	105	72	87	952	0.8
기 타	815	-	-	-	-	-	-	-	-	-	-	-	815	0.7
소 계	5,061	4,931	8,585	12,212	12,683	11,734	8,680	9,206	7,737	8,513	8,324	11,111	108,829	100

육이 냉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국가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자마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남미 칠레가 그동안 부동의 1위를 고수해 오던 유럽의 덴마크를 제치고 1위로 급부상했다. 이는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다른 수출국들에 비해 시장경쟁력을 갖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스펙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수입업체들의 각고의 노력(?)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입육 시장 폭발적 증가, 고돈가 즐거워 할 때 아니다

그 다음 순위로 이어지는 전통적 강세인 유럽의 중저가 벨기에, 목전지의 미국과 함께 프랑스, 덴마크, 네델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까지 가세되고 있다.

수입부위에 있어서도 올 들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삼겹살, 목살이 주종을 이루던 것이 갈비부위가 목살을 제치고 삼겹살 다음의 수입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각(앞다리, 목전지 포함)의 수입량

증가는 국산 돼지고기 가격폭등과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전각 수입량 증가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후지 가격이 돈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만큼 후지 가격급등에 따라 2차 육가공업체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kg당 3천6백원대를 나타내고 있는 후지 가격으로는 도저히 원료육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업체들은 수입트리밍육(잡육)의 대량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료육 가운데 수입전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등 국산에서 수입육으로 대체하는 물량을 점차 늘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와 같은 고돈가가 지속될 경우 그 비중은 물론 업체 수의 확산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이밖에도 수입육이 선택될 영역은 지금보다 훨씬 많으면 많아지지 줄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소비자를 대면하는 음식점에서부터 구이집, 레스토랑은 물론 가정 소비까지 수입육 시장확대가 빠르게 확대될 공산이 크다.

지금의 돈가 폭등은 돼지고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 앞으로 돼지고기는 예전과 같은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표 4〉 2004년 돼지고기 부위별, 월별 수입량

(단위 : 톤)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비율
갈 비	541	460	895	1,029	1,127	1,362	926	1,036	919	1,026	1,316	1,677	12,314	11.3
뒷 다리	22	25	119	67	95	74	49	68	40	-	70	62	691	0.6
등 심	22	23	28	-	1	11	55	66	-	23	46	95	370	0.3
목 심	495	367	809	1,306	1,643	1,602	1,139	1,174	883	1,095	1,087	2,093	13,693	12.5
삼 겹 살	3,354	3,469	4,899	-	5,330	6,219	6,190	6,367	5,509	5,980	5,268	6,143	58,728	53.9
안 심	-	18	28	-	-	-	29	-	23	12	-	-	110	0.1
앞 다리	503	402	1,263	3,280	4,045	2,154	87	137	76	211	394	797	13,349	12.2
기 타	124	167	572	805	443	310	204	357	287	166	143	244	3,822	3.5
합 계	5,061	4,931	8,585	12,212	12,683	11,734	8,680	9,206	7,737	8,513	8,324	11,111	108,829	100

시기는 '종결' 될지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생산자들도 작금의 돈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는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때 표정관리 잘 할려고 애쓰는 것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둔갑판매 원천적 차단을 위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SG(긴급관세제도)' 도입 등 향후 도래될 수입육 시장과의 한 판 전쟁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거나 칼자루를 잡고 있을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금의 호황기가 언제까지 옆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값 사상 최고, 100kg 기준 27만원

산지 돼지값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와 군위축협,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8일 현재 산지 돼지(생체)값은 100kg 기준 2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돼지 가격은 지난해 말 24만6천 원에 비해 10% 가까이 오른 것이며 사상 최고가이다.

새끼돼지(생후 45일) 또한 마리당 12만 원 내외에 거래돼 산지 돼지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위축협 김진열 조합장은 “지난해 7, 8월 여름 폭서 때문에 어미돼지의 수정률이 낮았던 데다 11, 12월 분만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설사병마저 돌면서 출산율이 급감, 새끼돼지 공급 부족현상이 빚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PMWS(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 증후군) 질병이 유행하면서 농가마다 폐사하는 돼지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경북도 강삼순 축산과장은 “경기 불황과 광우병 파동이 겹치면서 쇠고기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동남아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닭고기 수입감소로 국내산 닭고기값이 오르면서, 돼지고기 대체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농림부 축산국 이기풍 담당자는 “전국적으로 산지 돼지값이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육두수 감소가 절대적인 원인”이라며 “2004년 말 기준 국내 돼지사육 두수는 891만 두로 2003년 말 923만 두에 비해 3.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해 상반기부터 산지 돼지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 사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일부 대형 축산농가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영세농가들은 현상유지에 급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진열 조합장은 “실제로 열 농가 중 세 농가 정도만이 돼지값 폭등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이라며 “산지 돼지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사육붐이 일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

